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조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질 및 자녀와의 갈등 비교

최혜정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Comparison of Grandmothers' Subjective Health Status, Depression, Quality of Life and Conflict with Their Children Depending on Whether Raising Grandchildren or Not

Choe, Hye-Jeong

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Korea

Purpose: This research compared the degrees of grandmothers' subjective health status, depression, quality of life and conflict with their children between the grandmothers who take full charge of raising their grandchildren and the grandmothers who don't and was being conducted to provide the basic data of arbitration for health improvement of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Methods:** The study participants was 30 grandmothers who take full charge of raising the grandchildren and 30 grandmothers who don't of grandchildren. Grandmothers' subjective health status, depression, quality of life and conflict with their children between the grandmothers was measured by measurement tools developed by previous research. Data collecting were measured by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y SPSS 23.0. **Results:** The depression score of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was 26.60 ± 12.04 , which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19.57 ± 7.04 grandmothers were not raising grandchildren ($t=2.76, p=.008$). Also the conflict score of between children and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was 30.70 ± 10.72 , which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22.43 ± 6.40 between children and grandmothers were not raising grandchildren ($t=3.63, p=.001$). **Conclusion:** The results showed that a solution to intervene the depression and conflict with their children of the grandmother who raise their grandchildren is needed.

Key Words: Aged, Conflict, Depression, Health, Quality of life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

소하면서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2017년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56%를 기록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은 증가하였다(Statistics Korea, 2017). 취업한 기혼여성의 79.1%는 가정생활 병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 중 29.2%는 자녀양육 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Kim, 2012). 이에 따라 국

주요어: 노인, 갈등, 우울, 건강, 삶의 질

Corresponding author: Choe, Hye-Jeong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Gangwondaehak-gil, Chuncheon 24341, Korea.
 Tel: +82-33-250-8880, Fax: +82--33-259-5636, E-mail: chc0818@hanmail.net

- 이 논문은 제1저자 최혜정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This manuscript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7년 11월 3일 / 심사완료일: 2017년 12월 11일 /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17일

가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양육비 및 양육기관 서비스, 민간 베이비시터 등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부모를 통한 손자녀 양육이 63.6%로 아이 돌보미나 베이비시터보다 많아 조부모에 의한 양육 의존이 높은 상황이다(Yu, 2014). 또한 만 2세 미만의 어린 자녀일수록 시설보다는 개별양육을, 개별양육에서도 혈연관계의 조부모를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Yu, 2014) 조부모가 대리양육자가 되어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가운데 85.8%가 조모인 것을 감안하면(Bae, 2007) 양육지원에서 있어서 자녀양육의 지원자로서 조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년기는 노화에 동반되는 신체적 쇠퇴와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시기로 중년기 후반이나 노년기에 접어들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어서 관절염과 골다공증,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 외에 손자녀 양육 이후로 피로, 다리 불편, 관절 이상, 어깨통증, 요통 등의 신체적 불편 증상을 경험한다(Nam, 2000). 또한 노년기에는 사회적, 신체적 상실이 커짐에 따라 우울도 증가하는데 특히 여성노인의 우울은 남성에 비해 외로움, 소외감 및 대인관계의 단절이 더 빈번하여 심한 경우에 자살까지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다(Cho, 2000). Jang (2009)의 연구의 경우, 손자녀 양육 조모의 우울감 수준이 임상 기준점보다 높아 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노인의 신체적 건강과 우울은 삶의 질과도 관련이 된다. 노년기의 삶의 질은 삶의 만족, 건강상태와 기능 및 사회경제적인 상태에 대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로 노인의 전 생애 삶을 반영하며 신체, 정신,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노인의 총체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로서 고려된다(Lee, 2006).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양한데 Oh (2006)의 연구에서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가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고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함은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였으나 Chung (2010)의 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조모의 건강상태나 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들이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겪는 심한 갈등이나 불만, 외로움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가치적 측면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들의 경우 손자녀 양육 방식에 관해 성인 자녀와의 의견과 가치관이 다르다고 생각하며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되었다(Oh, 2006).

조모의 입장에서 손자녀 양육에 관하여 수행된 연구는 양

육부담감, 양육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양육 경험, 삶의 질, 만족감 등이 있다(Chung, 2010; Jang, 2009; Joung, 2014; Kim, 2010; Kwon, 2010; Oh, 2006). 그러나 그 연구결과는 다양하며 특히 손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는 조모와 손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조모의 건강 상태, 우울, 삶의 질 및 자녀와의 갈등 정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교 파악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를 전담하여 양육하는 조모와 손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조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질 및 자녀와의 갈등 정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우선적인 대리양육자로서 손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는 조모의 건강증진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저출산 고령 사회 속에서 여성노인들의 삶이 생산적이고 보람된 삶의 과정이 되도록 여성노인과 관련된 정책과 연구뿐 아니라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서비스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손자녀를 전담하여 양육하는 조모와 손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조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질 및 자녀와의 갈등 정도를 파악하고 두 그룹간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조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정도, 삶의 질, 자녀와의 갈등 정도를 비교한다.
-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정도, 삶의 질, 자녀와의 갈등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조모의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질 및 자녀와의 갈등 정도를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한 비교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N시의 10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조모를 편의표집 하였다. 대상자 선정 시 손자녀 양육 조모

는 연령이 60~70대이면서 손자녀와 동거하면서 돌봐주거나, 따로 살더라도 일주일에 5일 이상,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전담하여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로, 딸이나 며느리가 취업모이고, 손자녀가 취학 전이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손자녀 비양육 조모는 연령이 60~70대이면서 취학 전인 손자녀를 1명 이상 두었지만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는 조모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최종 대상자는 손자녀 양육 조모와 비양육 조모 각각 30명씩 총 60명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측 검정,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5로 산출하였을 때 .60의 검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

3. 연구도구

1) 주관적 건강상태

본 연구에서는 Sin과 Sin (2008)이 사용한 Speake, Cowart와 Pellet의 Perceived Health Statue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로서 '매우 좋다'에 5점, '비교적 좋다'에 4점, '보통이다'에 3점, '비교적 나쁘다'에 2점, '매우 나쁘다'에 1점을 주어 최저 3점에서 최고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5였다.

2) 우울

본 연구에서는 Jeon (1989)이 Zung의 우울척도를 여성노인에게 적절하도록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척도로서 '항상 그렇다'에 4점, '대체로 그렇다'에 3점, '약간 그렇다'에 2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어 최저 11점에서 최고 4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Jeon (198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6이었다.

3) 삶의 질

본 연구에서는 Jeon (2007)이 번안하여 사용한 Mekenna의 노인용 삶의 질 척도(quality of life scale for the elderly) 도구를 사용하였다. 노인용 삶의 질 척도는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건강하게 사는 노인들의 삶, 성공적인 노화에

초점을 두어 개발되었다. 5가지 하위영역으로 삶의 질을 구성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사회관계, 긍정적인 건강 인지, 자원, 독립, 방해를 측정한다. 이 도구는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에 5점, '그렇다'에 4점, '보통이다'에 3점, '그렇지 않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어 방해는 역점수로 처리하고 최저 40점에서 최고 2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Jeon (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9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5였다.

4) 자녀와의 갈등

본 연구에서는 Choi (1991)가 개발한 24문항의 갈등 측정 척도 중 모성간호학 교수의 자문을 구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갈등을 측정하는데 적정하다고 평가되는 15문항만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3점 척도로서 각 문항은 갈등을 느끼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에 3점, '그런 편이다'에 2점, '아니다'에 1점을 주어 최저 15점에서 최고 4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5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에 기관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2010-033)을 받은 후 경기도 N시의 10개 아파트 단지에서 본 연구자와 훈련받은 연구보조원이 직접 대상자들을 찾아다니며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참여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자가 보고에 의해 또는 작성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연구자나 연구보조원이 설문을 읽어 주고, 응답의 내용을 대신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2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였으며 총 60부를 배포, 수거하였고 모두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Statistic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손자녀 양육 조모와 비양육 조모의 일반적 특성 비교는 빈도분석, χ^2 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손자녀 양육 조모와 비양육 조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

울, 삶의 질 및 자녀와의 갈등 정도 비교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 손자녀 양육 조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질 및 자녀와의 갈등 정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손자녀 양육 조모와 비양육 조모의 일반적 특성 비교

대상자의 연령은 60~69세가 손자녀 양육 조모에서 20명(66.7%), 손자녀 비양육 조모에서 22명(73.3%)으로 많았으며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교육 수준은 손자녀 양육 조모의 경우 초졸이 12명(40%)으로 가장 많았고 손자녀 비양육 조모의 경우 초졸 10명(33.3%), 무학 8명(26.7%) 순으로 많았으며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종교는 손자녀 양육 조모의 경우 개신교 10명(33.3%), 불교 10명(33.3%)으로 많았고 손자녀 비양육 조모의 경우 무교가 10명(33.3%), 불교가 8명(26.7%)의 순으로 많았으며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손자녀 양육 조모에서 21명(70%), 손자녀 비양육 조모에서 23명(76.7%)으로 많았으며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동거형태는 손자녀 양육 조모의 경우 배우자와만 함께 사는 경우가 12명(40%),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8명(26.7%)의 순으로 많았고 손자녀 비양육 조모의 경우 배우자와만 함께 사는 경우가 22명(73.3%), 독거가 7명(23.3%)의 순으로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월수입은 손자녀 양육 조모에서 없음 8명(26.7%), 50만원 이하 8명(26.7%)으로 많았고 손자녀 비양육 조모에서는 51~100만원이 8명(2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의 유무는 손자녀 양육 조모의 경우 있다 16명(53.3%), 없다 14명(46.7%)이었고 손자녀 비양육 조모의 경우 없다 16명(53.3%), 있다 14명(46.7%)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주거상태는 자가 손자녀 양육 조모에서 24명(80%), 손자녀 비양육 조모에서 20명(66.7%)으로 많았으며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질병유무는 손자녀 양육 조모에서 있다 22명(73.3%), 없다 8명(26.7%)이었고 손자녀 비양육 조모의 경우 있다 15명(50%), 없다 15명(50%)이었으나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여가생활의 유무는 손자녀 양육 조모에서는 안한다의 경우가 17명(56.7%)으로 많았고 손자녀 비양육 조모에서는 한다의 경우가 18명(60%)으로 많았으나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2. 손자녀 양육 조모와 손자녀 비양육 조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질, 자녀와의 갈등 정도 비교

손자녀 양육 조모와 비양육 조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는 각각 8.60 ± 3.56 점, 9.53 ± 2.43 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t=-1.19, p=.240$), 삶의 질 점수에 있어서도 손자녀 양육 조모 115.87 ± 29.56 점, 비양육 조모 128.83 ± 21.81 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93, p=.058$).

반면, 손자녀 양육 조모와 비양육 조모의 우울 점수는 각각 26.60 ± 12.04 점, 19.57 ± 7.04 점으로 나타나 손자녀 양육 조모의 우울 정도가 비양육 조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76, p=.008$). 또한 자녀와의 갈등 정도도 손자녀 양육 조모가 30.70 ± 10.72 점으로 비양육 조모 22.43 ± 6.40 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63, p=.001$)(Table 2).

3. 손자녀 양육 조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질, 자녀와의 갈등간의 상관관계

손자녀 양육 조모군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질 및 자녀와의 갈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우울($r=-.72, p<.001$) 및 자녀와의 갈등($r=-.50, p=.00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삶의 질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79, p<.001$).

또한 우울의 경우 삶의 질과는 음의 상관관계($r=-.86, p<.001$), 자녀와의 갈등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84, p<.001$). 마지막으로 삶의 질의 경우 자녀와의 갈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66, p<.001$)(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조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질 및 자녀와의 갈등 정도를 전체적으로 비교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첫째, 손자녀 양육조모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8.60 ± 3.56 점, 손자녀 비양육조모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9.53 ± 2.43 점으로 손자녀 비양육조모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육조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Jang (2009)의 연구에서 손자녀 양육 조모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5점 만점에 평균 2.76점이었고 비양육 조모의 점수 평균이 2.76점으로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

Table 1. Characteristics of Grandmothers' by Raising Grandchildren or Not

(N=60)

Characteristics	Categories	Raising grandmothers (n=30)	Non-raising grandmothers (n=30)	χ^2 (p)
		n (%)	n (%)	
Age (year)	60~69	20 (66.7)	22 (73.3)	0.317 (.779)
	70~79	10 (33.3)	8 (26.7)	
Education level	No education	7 (23.3)	8 (26.7)	0.709 (.984) [†]
	Elementary school	12 (40.0)	10 (33.3)	
	Middle school	7 (23.3)	7 (23.3)	
	High school	2 (6.7)	3 (10.0)	
	≥ University	2 (6.7)	2 (6.7)	
Religion	None	8 (26.7)	10 (33.3)	2.593 (.676) [†]
	Christianity	10 (33.3)	7 (23.3)	
	Buddhism	10 (33.3)	8 (26.7)	
	Catholic	2 (6.7)	4 (13.3)	
	Etc.	0 (0.0)	1 (3.3)	
Marital status	Married	21 (70.0)	23 (76.7)	1.997 (.878) [†]
	Bereavement	7 (23.3)	7 (23.3)	
	Divorce	1 (3.3)	0 (0.0)	
	Separation	1 (3.3)	0 (0.0)	
Cohabitation	Husband+Children	8 (26.7)	1 (3.3)	16.879 (.001) [†]
	Husband	12 (40.0)	22 (73.3)	
	Children	6 (20.0)	0 (0.0)	
	Relation	1 (3.3)	0 (0.0)	
	Alone	3 (10)	7 (23.3)	
Family monthly income (10,000 won) (without pocket money received from an adult child)	None	8 (26.7)	5 (16.7)	3.443 (.813) [†]
	≤ 50	8 (26.7)	5 (16.7)	
	51~100	6 (20.0)	8 (26.7)	
	101~150	2 (6.7)	2 (6.7)	
	151~200	2 (6.7)	5 (16.7)	
	201~250	3 (10.0)	4 (13.3)	
	≥ 251	1 (3.3)	1 (3.3)	
Pocket money received from an adult child	No	14 (46.7)	16 (53.3)	0.267 (.797)
	Yes	16 (53.3)	14 (46.7)	
Housing status	Own house	24 (80.0)	20 (66.7)	4.617 (.178) [†]
	Rental house	3 (10.0)	9 (30.0)	
	Rented apartment	2 (6.7)	1 (3.3)	
	Children's house	1 (3.3)	0 (0.0)	
Disease status	No	8 (26.7)	15 (50.0)	3.455 (.110)
	Yes	22 (73.3)	15 (50.0)	
Leisure life	No	13 (43.3)	18 (60.0)	1.669 (.301)
	Yes	17 (56.7)	12 (40.0)	

[†] Fisher's exact test.

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 조부모 양육자들은 손자녀를 돌보는 동안 신체 건강상의 변화를 겪었고 손자녀를 키우지 않는 조부모들보다 건강 문제를 더 많이 호소하였으며(Musil & Ahmad, 2002), 손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조부모 대상 질적 연구에서 손자녀 양육 이후 건강 상태가 나빠졌고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결과(Kim, 2006; Kim, 2007)와는 다르

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손자녀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 대체적으로 신체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조모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영유아 손자들처럼 신체적이 돌봄과 양육이 전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들의 경우에 지각되는 신체적 건강상태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Kwon, 2007). 추후 손자녀의 연령 및 발달 특성에 따른 조모

Table 2. Comparison of Grandmothers' Subjective Health Status, Depression, Quality of Life, and Conflict with Their Children (N=60)

Variables	Raising grandmothers	Non-raising grandmothers	t	p
	M±SD	M±SD		
Subjective health status	8.60±3.56	9.53±2.43	-1.19	.240
Depression	26.60±12.04	19.57±7.04	2.76	.008
Quality of life	115.87±29.56	128.83±21.81	-1.93	.058
Conflict with their children	30.70±10.72	22.43±6.40	3.63	.001

Table 3. Correlation among Subjective Health Status, Depression, Quality of life, and Conflict with Their Children of Grandmothers Who are Raising Their Grandchildren (N=30)

Variables	Subjective health status	Depression	Quality of life	Conflict with their children
	r (p)	r (p)	r (p)	r (p)
Subjective health status	1	-.72 (< .001)	.79 (< .001)	-.50 (.005)
Depression		1	-.86 (< .001)	.84 (< .001)
Quality of life			1	-.66 (< .001)
Conflict with their children				1

의 양육 부담과 건강상태를 파악해 보거나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조모에 의해 개별양육을 하고 있는 조모의 건강상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손자녀 양육조모의 우울 점수는 26.60±12.04점, 비양육조모의 우울 점수는 19.57±7.04점으로 손자녀 양육조모의 우울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37%가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손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조모에 비해 높은 수치였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Fuller & Minkler, 2000). 반면 손자녀 양육 조모의 우울감에 대해서 일반여성노인과 비교를 한 Jang (2009)의 연구에서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노인의 우울감은 7.56점,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모의 우울감은 7.17점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우울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임상적 우울감의 절단점인 6.7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 여성의 우울정도를 파악하고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가 필요함을 보였다. 특히 손자녀 양육을 하는 조모에게 있어서는 자녀와의 갈등, 양육 부담 등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모두 요구된다(Kim, 2001).

셋째, 손자녀 양육조모의 삶의 질 점수는 115.87±29.56점, 비양육조모의 삶의 질 점수는 128.83±21.81점을 나타내어 비양육조모의 삶의 질 정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손자녀 양육 경험이 없는 경우가 손자녀의 양육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삶의 만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이 느꼈고,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가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고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함으로 인해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결과와는 다르다(Lee, 2006; Oh, 2006). 손자녀 양육 여부보다는 지각되는 건강상태가 조모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제시된 연구결과(Chung & Kim, 2010; Joung & Yi, 2014)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과 비양육 조모 간에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두 집단 모두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통 정도로 지각했던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손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면서 친구나 이웃과의 접촉이 감소하면서 초래되는 사회활동의 감소는 조모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도 하였는데(Kim, 2005)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가 어린이집에 있을 동안 사회적 왕래가 가능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점과 손자녀 양육 조모와 비양육 조모 간에 여가 생활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특성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손자녀 양육조모의 자녀와의 갈등 정도는 30.70±10.72점, 비양육조모의 자녀와의 갈등 정도는 22.43±6.40점으로 손자녀 양육조모의 자녀와의 갈등 정도가 비양육 조모의 자녀와의 갈등 정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취업모와 조모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지각한 경우가 49.9% 였던 결과(Kim, 2013), 손자녀 양육 조모와 취업모의 양육 갈등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Kim, Song, & Lee, 2015)처럼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자녀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자녀와의 갈등의 요인으로는 손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감, 경제적인 부담, 손자녀 양육의 기간, 지지 체계의 부족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Bae, Rho, & Kweon, 2008; Kim, 2001; Kim, Seong, Paeng, Choi, & Choi, 2011) 자녀와의 유대관계 부족, 가치관의 갈등, 다른 가족과의 갈등도 자녀와의 갈등의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Kim & Seo, 2007). 따라서 손자녀 양육 조모의 자녀와의 갈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자녀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중재에 있어서는 단순히 신체적, 경제적 부분 뿐 아니라 자녀와의 유대 관계와 가치관의 공유와 이해에 대한 측면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손자녀 양육 조모와 비양육 조모의 우울 정도와 자녀와의 갈등정도가 손자녀 양육 조모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손자녀 양육조모의 우울과 자녀와의 갈등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간호중재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손자녀 양육 조모의 자녀와의 갈등 정도가 높은 경우에 우울이 높았으며, 우울 정도는 주관적 건강상태 및 삶의 질과 음의 상관성을 보였으므로, 손자녀 양육 조모의 자녀와의 갈등과 우울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는 나아가 노년기의 건강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소수의 조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연구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제한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좀 더 넓은 지역과 많은 표본 수로 확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비교를 함에 있어서 손자녀 양육 조모의 조건을 보다 집중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영유아기의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모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 연구를 시도할 수 있겠다. 또한 조모와 성인 자녀간의 갈등 연구에 있어서 조모와 성인 자녀 쌍방을 대상으로 갈등을 연구하여 그 차이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는 연구 즉, 손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조부모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더불어 자녀 양육을 조부모에게 의지하는 취업모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비교 연구와 나아가 이런 갈등의 완화를 위한 교육 및 간호중재의 개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손자녀를 전담하여 양육하는 조모와 손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조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질 및 자녀와의 갈등 정도를 파악하고 비교하여 손자녀 양육 조모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조모보다 우울이 더 높고 자녀와의 갈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우울에 대한 다양한 변인을 분석하는 연구와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와 성인 자녀와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손자녀 양육 조모의 우울과 자녀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중재의 개발을 제언한다.

REFERENCES

- Bae, J. H. (2007).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parenting grandparents and co-parenting grandparents: Factors affect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29, 67-94.
- Bae, J. H., Rho, S. K., & Kweon, K. S. (2008). Current practices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and their needs for support.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5(1), 379-410.
- Cho, E. H., Jun, J. H., & Lee, S. W. (2000). A model for the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in the elderly with chronic disease. *Annals of Geriatric Medicine and Research*, 4(3), 148-163.
- Choi, J. H. (1993). Comparison of conflicts between aged parents and adult children in urban and rural area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1), 55-63.
- Chung, C. W., & Kim, M. J. (2010). Grandmother's life satisfaction and influencing factors by grandparent.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6(3), 288-296.
- Fuller-Thomson, E., & Minkler, M. (2000). African america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a national profile of demographic and health characteristics. *Health & Social Work*, 25(2), 109-118.
- Jang, G. W. (2009). *A study on depression of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Focusing on comparing with the elderly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Jeon, S. J. (1989). *Reminiscence: Content analysis and its nursing impli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Jeon, Y. S. (2007). *A study on effect of a leisure education program on a leisure awareness and quality of life among elderly pers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Joung, W. J., & Yi, M. S. (2014). Influence of perceived health, parental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quality of life in grandparental caregiver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6(3), 310-319.
- Kim, E. J. (2013). A study on the relation patterns and the quality of relationship between grandmothers raising infant grandchildren and employed mother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40, 93-123.
- Kim, E. J., & Seo, Y. H. (2007). A qualitative study on child-rearing by grandparents.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8(2), 175-192.
- Kim, M. H. (2005).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of grandmothers who raise their grand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iduk University, Gyeongju.
- Kim, M. H., Seong, K. O., Paeng, K. H., Choi, H. J., & Choi, S. Y. (2011). Factors affecting the conflict betwee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and adult children: Focusing on grandparents characteristics.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1(4), 905-923.
- Kim, M. J. (2006). *The experience of grandmothers who raise their grand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im, M. O., Song, S. M., & Lee, S. L. (2015).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child-rearing experience and conflict of grandmothers in dual-income families: from the grandmother's and working moms' point of view. *Korean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1(4), 239-269.
- Kim, M. S. (2010). *A study on the factors that have influence upon grandmother's caring satisfaction of grand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 Kim, M. Y. (2001). *A study on the mental health of grandmothers who raise their grand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S. K., Park, J. S., Kim, Y. K., Kim, Y. W., Choi, Y. J., Son, C. K., et al. (2012). 2012 National survey on dynamics of marriage and fertility. Retrieved December 20, 2017, from 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320&CONT_SEQ=337093&FILE_SEQ=197132
- Kwon, J. Y. (2007). Parents' perception of very early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as related to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4(2), 1-19.
- Kwon, Y. H. (2010). *Parenting stress of grandmothers who rear grandchildren and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Lee, B. J. (2006). *The degree of a leisure life and life satisfaction of agricultural old people rearing grand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Lee, G. J., & Park, H. S. (2006). A study on the perceived health status, depress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for the elderly in urban area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2(3), 221-230.
- Lee, Y. J., Kwon, M. K., & Kim, S. J. (2015). *A study of both childcare actual condition and support plan of grandchildren who are being raised by grandparents*. Seoul: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Musil, C. M., & Ahmad, M. (2002). Health of grandmothers: A comparison by caregiver statu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4(1), 96-121.
- Nam, M. S. (2000). *A study on the life and support for grandparent in charge of grandchild parent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 Oh, J. A. (2006). Care stress and quality of life of grandmother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in employment mother's home.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2(3), 368-376.
- Sin, M. K., & Sin, S. J. (2008). Effects of group exercise program tailored by physical fitness on perceived health status, physical strength, de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 of the elderl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0(4), 613-625.
- Statistics Korea. (2017, August 30). *City/district/total fertility rate, birth rate by mock age*. Retrieved December 20, 2017,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vw_cd=&list_id=A21_1&seqNo=&lang_mode=k 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 TITLE
- Statistics Korea. (2017, December 7). *Working women living with her children per city*. Retrieved December 20, 2017,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J010&vw_cd=&list_id=B19_8&seqNo=&lang_mode=k 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 TITLE
- Yu, H. M., Bae, Y. J., & Kim, M. J. (2014).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childcare support for children of dual income families*. Seoul: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